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욕기 7, 1-4, 6-7
 [화답송] 시편 147(146-147), 1, 4-2, 3-4, 5-6(◎ 3- 참조)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즐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 2독서] 1코린 9, 16-19, 22-23
 [복음 환호송] 마태 8, 17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마르 1, 29-39

성가	8시 미사	입당 446	봉헌 218	성체 152 180	파견 462
	11시 미사	입당 446	봉헌 218	성체 152 180	파견 462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5주일(2월 8일)		설미사(2월 15일)	사순 제 1주일(2월 22일)	
	8시미사	교중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승원 루카	2구역:조선덕 레지나	3 구역 : 전윤자 데레사	정일환 프란치스코	김순희 글라라
제 1 독서	최환준 베네딕토	2구역:최환준 베네딕토	3 구역 : 조진행 바실리오	채성일 토마스	정석준 요한
제 2 독서	최수영 베네딕타	2구역:손정옥 리디아	3 구역 : 팽정숙 데레사	정애리 스텔라	정인경 가브리엘라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예수님의 자비(misericordia)와 측은지심(compassionevole)의 마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된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 질병들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강렬한 체험이며, 경험인 동시에 병고를 겪은 인간 안에 잔류하고 내재되어있다. 치통으로 고통을 당한 경험,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던 경험, 좀 더 나아가서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의 고통,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아물기까지의 고통…….

이런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에 잔류한다. 누군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쳐지게 하는 것이 질병의 고통이다. 그만큼 강렬했기에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하게나마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으며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마르 1, 21)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저녁때가 되어서도 병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치유해 주셨다.

한낮에는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 몰려왔다. 더 이상 해가 비치고 있지 않기에 안식일이 지났다고 안심하고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육체의 고통은 자신의 존재성을 가장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져서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삶을 힘겹게 만든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의 경계를, 밤과 낮의 경계를 무너뜨리셨다. 질병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인간에게 당신의 자비(misericordia)와 측은지심(compassionevole)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앓고 있던 병이 씻은 듯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단순히 강렬한 체험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것은 안식일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자비(misericordia)와 측은지심(compassionevole)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고통의 체험과 더불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통이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라는, 함께 하라는 사명인 동시에 예수님의 자비(misericordia)와 측은지심(compassionevole)의 마음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라’ (루카 9, 2; 10, 9)고 당부하신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 받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예수님 자신이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한 것처럼…….

김규엽 아우구스틴 신부
인천교구 부천 성모병원

생명의 말씀

고통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현저히 길어졌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도 쉽게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대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첫째 독서의 주인공은 고통 한가운데 있는 인간, 욘입니다. 그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두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복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달아 닥친 불행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전부 잃고, 재산도 사라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덮쳐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에 짓눌린 욘은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라고 부르짖으며,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욘처럼 절규하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 해 주십니다. 갖가지 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받는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호의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묵시 21,4)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세상이 당신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안하게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 길을 떠나십니다.

좋은 부모 같은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종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낱알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철이 들라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

유’ (루카 15,11-32)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타내어 멀리 떠났지만, 그 돈이 바닥나자 무진 고생을 한 끝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철부지가 철이 들도록 고생길로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분입니다.

설사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도록” (로마 8,28)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읍시다.

아울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 곁에서 힘이 되어 줍시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된 사도 바오로처럼 말입니다.

손희송 신부
서울 대교구 사목국장

말씀의 향기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의 세계

합숙 훈련소 생활을 시작하며, 엘리트 운동선수로 들어섰다는 기대와 함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훈련 일정은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 운동장 10바퀴를 뛰며 새벽 운동을 시작합니다. 전력으로 달리고 난 뒤, 두 명씩 짝을 지어 발목을 잡아주면 옆드려 두 팔로 100미터를 달립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호흡은 턱밑까지 차오릅니다.

10시부터는 근력 강화운동으로, 역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겁게 끼워 드는 것입니다. 저는 한창때 허리로만 드는 데드리프트를 230kg을 들었으니 제 체중 66kg의 4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을 때는 한 손엔 악력기로 운동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뜨면서 탁 찬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채기를 반복했는데, 국물이 다 흘러도 생활 속에서 유도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오후 운동은 전술 훈련인 유도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휴식을 취하지만, 너무 힘들어 가슴이 뻐집니다.

때로는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울기도 합니다. 울고 나면 잠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드릴 줄 모르던 제가 하도 힘이 들어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훈련에 들어가야 하기에 하느님과 어머니가 유일한 저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생각하며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이어지고 7판 정도 하면 일어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럴수록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감히 이기게 해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제발 이 시간을 버티게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유도복이 3키로 정도 나가는데,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고 나서 도복을 짜면 땀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상당한 고강도 훈련을 하고는 땅에 쓰러져 한동안 누워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고무줄을 철봉에 매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

아지곤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 잠시나마 힘이 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야간 훈련은 8시부터 고무줄 당기기를 합니다. 단단한 고무줄을 가지고 실전 업어치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근육통으로 온몸이 쭈시지만 쉬어가는 것 없이 다시 운동에 돌입하면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팠던 근육들이 다시 땅을 흘리면서 덜 아파집니다.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를 꼭 깨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정이 넘어서야 혼자서 하는 훈련이 끝나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지만 잠들기 전에는 늘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를 환히 웃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민호 바오로
유도코치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 쇠렌 키르케고르

성경산책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 욥이 탄식하는 제1독서 욥기 7장 1절~7절, 그리고 욥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있는 욥기 1장 1절~12절을 읽어보세요.

합니다. 그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욥기 2-4장, 42장

우초라는 곳의 ‘욥’은 큰 부자이며 자녀들도 많고 세상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의 해결과 마지막 희망은 하느님께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어느날 주님 대전에 천사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욥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은 없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느님께 “욥이 재산도 많고, 자손도 많고 건강과 명예도 있으니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 하느님을 원망할 것이다.”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사탄에게 욥의 고통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 욥이 당한 고통은 재물과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집과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주시냐며 하느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욥기 1, 13-22

욥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자 이번에는 질병의 시련을 줍니다. 욥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심한 부스럼이 나서 잣더미에 앉아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욥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느님께 욕이나 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던 욥에게 친구가 무척 많았지만, 세 친구만 그를 찾아옵니다. 고통과 재난을 당하면 친구들은 물론 친족들도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진정한 친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멀리서 욥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는 너무 슬퍼 나중에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욥도 한때 고통에 굴복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께서 주셨다가 ()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욥기 1,21)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을 싸매 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해 주신다네.”
(욥기 5,18)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날짜		지 향	봉 헌 자
2월 8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부모님	원젬마
	연	부모님	최타데오(몽열)
	연	전창민	정아가다(청자)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김카타리나(이나)	전수산나
	생	이아네스(명란)	유마리아
2월 10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2월 13일 금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0	202	15	297
헌 금	\$553	\$1,241.50	\$9.25	\$1,803.75

< 교무금 > \$4,470

양주석(9-12/2014) 박민진(1) 이정연(2) 조상희(2)
 정영언(1-2) 전숙희(2) 김순이(2) 전문자(2)
 채용분(2) 김원조(1-6) 김영자(1) 정애리(1)
 이흥구(1-2) 최순일(1) 이병열(2) 조덕행(1-2)
 전덕천(1-2) 정진희(2) 김정복(2) 박일신(2)
 이건용(2) 이은자(2) 천종욱(2) 김영희(1-2)
 김옥녀(2) 김광석(1-2) 김정탁(1-2) 유홍식(1-2)

< 성소후원금 > \$100

김순이(2) 채용분(2) 조덕행(1-2) 김정복(2)
 박일신(2) 이은자(2)

< Bishop's Appeal >

조덕행(1-2)

< 감사헌금 >

김세록 \$100

< 초봉헌 >

박호영 \$200 정병구 \$100

~~~~ 오늘 간식은 박상일 시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예비자 입교식

일시 : 오늘 교중미사 중

◆ 전례 안내

- \* 2월 15일 : 설합동위령미사(11시 합동미사)  
\*\* 아침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 2월 18일 : 저녁 7시 30분 재의 수요일(단식과 금육)  
\*\*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설합동위령미사봉헌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2차 헌금

2월 22일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헌금

◆ 성지가지를 2월 15일까지 성당입구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사순피정

- 2월 27일(금) 저녁 미사 후 영상 십자가의 길
- 3월 1일(일) 점심 식사 후 강의  
- 주제 :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 친교실에서는 바오로딸 도서선교가 있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2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 요아킴회/안나회 : 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대건회 : 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재정위원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성당입구 방

◆ 성모회 총회

- 2월 15일(다음주) 미사 후 106호실
- \* 65세 미만의 자매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2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3  | 리치몬드/버클리 | 2월21일(토)5시 | 정일환프란치스코덕 |

◆ 본당 올드레야 모임

- 2월 15일 미사 후 106호실
- \* 간사 선출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여성 10차 꾸르실료 주말 봉사자 신청

- 꾸르실료 주말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간사) 510-688-0157

◆ 각 구역 전례봉사자 모집

- 교중미사 중 독서와 미사해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반장님이나 사무실로 알려 주십시오.

◆ Brown Bag 봉사활동과 후원요청

- \* 금년도 Brown Bag 배급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1년 등록비 \$10을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Brown Bag 식료품 구입과 수송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자의 Donation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 및 문의 : 친교실 Brown Bag Desk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엘프레다(2/8) : 김수연

\* 스킨라스티카(2/10) : 김병화

**주일학교 소식**

- 영어미사 : 오후 12시 30분
- 2월 15일 : 휴강(합동미사)

**안국학교 소식**

- 2월 14일 : 휴강(Presidents' Day)
- 2월 21일 : 설행사